

### 진도,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 누구나 어디서든지 "마을방송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진도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전 마을에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농어촌 지역 고령화와 기존 마을방송 방식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기와 유선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진도를 시가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군민들은 마을방송 청취가 곤란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로 청취할 수 있고,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어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군민은 스마트마을방송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하면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

### 목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된 엔진 지원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을 신청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몰러)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지원대수는 10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전액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최초등록일부터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신안, 지역축제 현장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신안군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지난 9일 지도 병어축제 현장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질환이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 시 비브리오패혈증이 활발하게 증식해 5~6월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염 시 급성발열·혈압저하·구

토·설사·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안군은 매주 해수 및 어패류 취급업소 수족관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방문·전화 등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 교육 및 관리를 시행 중이다.

예방수칙으로는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 주의, 사용한 도마 및 칼 등 조리도구 열탕 소독, 어패류 취급 시 장갑 착용 등이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 강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9억원 확보

### 강진읍·신전면·옴천면 3개 마을 선정 2027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 초부터 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내부적 평가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왔다. 지난 4

월 12일에는 전라남도 자체 현장 평가를 거쳐 계획서를 보완해,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 대면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마을은 강진읍 송현마을, 신전면 백용마을, 옴천면 계원마을 3개 마을로, 마을별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5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선정으로 강진군은 3개 마을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철거, 마을안길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등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공모 선정을 위한 그동안 3개 마을 추진위원회와 주민

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민이 살기 좋고 편안한 농촌 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진읍 남포마을 (18억 원), 2019년 군동면 영포마을 (21억 원), 2020년 강진읍 장동마을, 작천면 내동마을 각 (19억 원), 2022년 강진읍 송정마을 (24억 원), 병영면 동삼인마을 (20억 원) 2023년 작천면 죽산마을 (21억 원) 등 꾸준한 사업 신청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완도 해양치유 'K-농산어촌 한마당'서 돋보여

군 자체 개발 팩·앰플·입욕제 등 테라피 제품 눈길 끌며

완도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해 오는 9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K-농산어촌 한마당'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청년 유출 등의 위기로 지방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시 박람회이다.

올해는 160개의 전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군은 해양치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태안군과 함께 공동관을 운영했다.

특히 완도군은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될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테라피 제품은 피부 미용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머드팩과 피부 컨디션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고농축 앰플, 긴장 완화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 피부 영양 및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크럽 등이다.

한 관람객은 "바다에서 나는 자연

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제품에 관심이 가고 해양치유를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완도 해양치유담당관은 "완도 해양치유 브랜드 강화와 홍보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오는 9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산업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 영암 21~23일 '찾아가는 주민·청년참여예산 학교' 운영

영암군이 '2023년 찾아가는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를 오는 21~23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는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읍·면 순회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특히,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청년참여위원회 공모,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이 예산 수립에 참여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청년예산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 교육은 일반 3회, 청년 2회로 총 5회 구성돼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영암군 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제안사업 발굴 △우수사례 학습 등을 내용으로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교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군민 안전 예산편성 교육도 추가됐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영암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교

육 내용과 일정 등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영암군 앱 '영암e랑',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를 영암군 예산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예산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과 제안사업 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 공모에도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관 중심의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행을 탈피,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해남 송호해수욕장 다음달 14일 개장

해남군은 팜밭마을 송호해수욕장을 다음달 14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군은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 피서객 맞이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팜밭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얇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송호해수욕장 인근의 사구미해수욕장은 올해 정식 개장하지 않고 주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9일 2023년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확정하고, 시설물 확충 등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2022 행복해남!

#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